

미셸 푸코 사상의 도시계획에의 함의

Michel Foucault's Implication on Urban Planning

이 수 장*

Lee, Soo-Jang

Ⅰ 목 차 Ⅰ

- I. 들어가는 말
- II. Foucault의 사상
- III. 도시계획에의 함의
- IV. 맺는 말 : Foucault의 담론과 정책과정

Kant를 출발점으로 Habermas는 합의에 근거를 둔 도덕성(morality) 철학자인 반면 Nietzsche를 따른 Foucault는 갈등과 권력의 견지에서 말하는 실제 역사(real history)의 철학자이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보다 큰 민주주의, 강력한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Foucault이다. Foucault는 일반화된 이상에 관해 무관심 내지 반대하나 실제 정치를 미묘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 Habermas와 Foucault 모두 정치에 있어 이상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Foucault는 이성으로써 합리론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 작동하는 합리성을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협박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Foucault는 권력/지식 역동성에 기초한 담론들 간의 경쟁으로서 정책 결정을 이해하는 방향의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이론적 수준을 제공해왔다. 합리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논증이 어떻게 정책결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형시키는가를 질문한다. Foucault의 담론이론으로부터 개발된 계획 패러다임의 가능성이나 가치는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Foucault가 제공하는 초점과 도구는 현대 계획이슈의 핵심으로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획 논의에 있어 가치와 지식기반의 충돌, 반대집단들간의 분쟁, 권한화의 가능성, 실세계문제에 대한 대응성, 정책을 개발·정당화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의사소통적 기교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

* 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13. 1. 3, 심사기간(1차): 2013. 1. 4 ~ 2013. 2. 23, 게재확정일: 2013. 2. 23

□ 주제어: 미셸 푸코, 권력, 담론, 지식, 도시계획

Taken together, the works of J. Habermas and M. Foucault highlight an essential tension in modernity. This is tension between the normative and the real, between what should be done and what is actually done. Understanding this tension is crucial to understanding modern planning, what it is and what it could be. It has been argued that an effective way of making democracy stronger is to strengthen civil society. This article contains analysis of the central ideas of Foucault as he pertains to the question of democracy and civil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power analytics of Foucault evaluating his usefulness for thos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and bringing about, democratic planning.

□ Keywords: M. Foucault, power, discourse, knowledge, urban planning

I. 들어가는 말

강력한 시민 사회가 강한 민주주의의 결정적 조건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권한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중심 관심사인 것이다.

그런데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절실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우나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제 영역의 밖에서 자발적 결사체에 의해 구성된 제도적 중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사체로는 교회, 스포츠클럽으로부터 미디어, 대학, 성과 인증 그리고 정당 및 노동조합에 이르기 까지가 포함된다(Habermas, 1992: 453). Keane(1988: 14)은 이러한 결사체에게 두 가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적 과정, 즉 사회적 공평성과 자유의 확대와 국가제도의 재구조화와 민주화를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재규정하는 과업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지난 세기는 Foucault의 시대였고 남은 세기도 여전히 Foucault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들뢰즈(Deleuze)의 생각처럼(양해립, 2006: 321)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 받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Nietzsche를 따른 갈등과 권력의 견지에서 말하는 실제 역사(real history)의 철학자이다.

Foucault는 권력분석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즉 권력이 사법적-담론적인

권력-법률, 권력-주권의 어떤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때만 권력으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Foucault, 1978: 82~90). 이러한 연계 상에서 Foucault는 정치적 분석에서 왕의 목을 잘라서 이를 탈중심화된 권력의 이해로 대체하자는 그 유명한 주장을 하고 있다(Foucault, 1978: 89). 또한 Foucault는 의사소통에는 항상 권력이 침투되어 있고 권력은 항상 현재한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88: 11). 따라서 Kant를 출발점으로 Habermas는 합의에 근거를 둔 도덕성(morality) 철학자인 반면 Nietzsche를 따른 Foucault는 갈등과 권력의 견지에서 말하는 실제 역사(real history)의 철학자이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보다 큰 민주주의, 강력한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Foucault이다. Foucault는 일반화된 이상에 관해 무관심 내지 반대하나 실제 정치를 미묘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 Habermas와 Foucault 모두 정치에 있어 이성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Foucault는 이성으로써 합리론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 작동하는 합리성을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협박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Rajchman, 1988: 70).

Foucault를 계보학적 역사편찬을 상대주의적이며 신비적으로 규범적인 환상과학으로 치부하는 비판이 있는데(Habermas, 1987: 276), Foucault는 상대주의의 문제를 소위 도덕성의 역사가들을 말하는 Nietzsche를 따르면서 해결하고 있다. 즉 Foucault는 상대주의를 거부하고 상황적 윤리(맥락윤리)를 채택한다. Kant와 Habermas에 분명히 의존하면서 Foucault는 이 두 사람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과학이 되어온 형이상학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84b: 46). 자신이 형이상학으로부터 초연해진다고 해서 Foucault를 규범 없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그의 규범들은 누가 가해자이거나 누가 피해자이거나 간에 권력의 모든 남용에 도전하려는 열망에 표현되고 있다(Miller, 1993: 316). Foucault의 규범은 역사적·개인적 맥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Foucault에 의하면 그 규범들은 그 사람과 그 맥락에 무관하게 보편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근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Foucault가 어떤 맥락에 있어서도-그것이 Marx이든지, Rousseau 이든지 Habermas이든지 간에-경고하고 있는 유토피아적-전체주의적 합의와 윤리적 동일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을 순종시킨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수용가능한 도덕성의 형태를 모색하는 것은 나에게 재앙인 것처럼 보인다고 Foucault는 주장한다(Dreyfus & Rabinow, 1986: 119). Foucault의 해석에서는 그러한 도덕성은 시민사회를 위협하게 할 수 있을 뿐 권한화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Foucault는 악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에 관한 아이디어와 사고 체계에 대한 헌신 문제에 있어 제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철학과 사회과학에

있어 보편성의 가치에 관해 Foucault의 견해는 Habermas와 대척(對蹠)적이다. Foucault는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Foucault, 1984a: 247), 이 점이 사회분석에서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Foucault의 실제 작동하는 합리성의 분석은 어느 누구도 보편성의 존재를 아직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활동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보편성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Foucault에 의하면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유약한 시민사회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제도와 시민사회를 권한화하는 것과 같은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제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반대하거나 증진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지구적인 도덕적 규범이 아닌 사회 및 정치 변화의 Foucault의 출발점이다.

Foucault에 따르면 Habermas의 법에 의한 권력의 권위화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즉 사법제도는 새로운 권력방법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새로운 방법은 국가와 그 기제를 초월한 모든 수준과 형태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다(Foucault, 1980: 89). 법률과 제도, 또는 정책과 계획안은 자유, 공평성 또는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는다. Foucault에 따르면 전체 제도적 체제조차도 자유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는 추상적인 이론적 체계나 올바른 자유를 강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없다. 오히려 역사는 사회체제가 자유를 이론적 공식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실제로 사회공학, 즉 인식론적으로 기술을 도출한 것으로 취급해 왔다는 무서운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Foucault는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전반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나를 비난하고 있다. 반대로 나는 추상적이며 제한하는 전체화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개방하려고 한다(Foucault, 1984d: 375-6).

Foucault의 사고는 기존 헌법과 이와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보다 민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Foucault는 구체적 맥락에서 실제 권력 관계를 계보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Foucault는 양식(pronosis)을 정향하고 있는 반면 Habermas는 인식(episteme)을 정향하고 있다(Flyvbjerg, 1998: 223). 왜냐하면 Foucault는 실천과 자유가 보편성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자유가 실제이며, 그 이상은 유평안적 권력의 결여가 아니라고 한다. 합의에 대비되는 저항과 투쟁이 자유의 실천을 위한 가장 견고한 기초라는 것이다. 권력과 자유의 문제에 있어 Foucault와 Habermas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Foucault는 Habermas를 유평안으로, Habermas는 Foucault를 '냉소적'(cinic) 내지 '상대적주의적'으로 보고 있다.

Foucault는 실제적 미시 정치를 강조하며, Foucault는 과정과 내용에 관해 상향적 사상가이다. Foucault는 지배에 대한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으로써 갈등과 권력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Foucault의 상향적 사고로 인해 Foucault는 비행동적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Foucault가 행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저했다(Flyvbjerg, 1998: 224).

Foucault는 한계성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사고를 차이, 다양성 및 정체성 정치에 민감하게 만들었고 이것들은 오늘날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라는 생각에는 성 편견이 내포되어 있고, 오늘날 시민사회의 개념하에 (무엇인가) 세워야 한다면 이러한 편견은 제거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일을 위해서는 Foucault가 Habermas보다 훨씬 도움이 되며, 성과 인종에 민감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그 진보가 느리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사회에의 구조와 기능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페미니스트들과 환경론자들은 일차적으로 합리적 합의가 아닌 행동주의와 사회변동의 특징인 권력 투쟁과 갈등을 통해 공공의제에 그들의 이슈를 올려놓고 있다(Wapner, 1994). Eley가 보여주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공공영역의 구성은 합리적 담론과 합의뿐만 아니라 갈등, 경쟁적 의미 및 배제의 장으로부터 생겨났다. 공공영역의 구성에 내포된 이성애의 요구는 동시에 Foucault의 의미에서는 권력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Eley, 1992: 307).

요컨대 Foucault는 합리화와 권력의 오용이 우리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속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최선으로 이해·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Foucault는 국지적이며, 맥락 의존적이며, 권력투쟁의 기초로 전략과 전술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Foucault의 접근방법의 가치는 권력의 역동성을 강조한데 있다. 왜냐하면 행동은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Foucault는 Realpolitik와 Realrationalitat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구체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즉 Foucault는 Thucydidas에서 Machiavelli, 그리고 Nietzsche에 뿌리를 둔 특정적이며 맥락 주의적 전통 내에서 활동·사고하고, 이러한 전통의 20세기의 중요한 설명자중의 한 사람이다. 권력의 측면에서 볼 때, 전략적 사고, 투쟁, 갈등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한 시민사회는 갈등의 존재를 보장하고 따라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Foucault는 인정하고 있는 갈등과 권력을 그것의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보루로써 공공 영역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II. Foucault의 사상

1. 담론과 권력

Foucault는 Habermas와 마찬가지로 담론의 조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한 강연에서 Foucault는 담론의 생산이 통제되고, 선별되고, 조직화되는 동시에 재분배되는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Foucault, 1984c: 179). 초기 고고학 연구에서 Foucault는 근대 지식분야의 비연속적 진화, 변동하는 지적 체계 등을 연구하였다. 후기 계보학연구에서는 담론의 자율적 영역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적 통제 문제를 둘러싼 담론적 및 비담론적 실제의 역사적 형성을 연구하였다(Dreyfus & Rabinow, 1983). Foucault는 비판론적 실재를 형성하고 형성되어지는 지적 구조의 구성을 보고 있으며(Fischler, 2000: 359). 언어의 전략적 사용에 관심이 있으나 Foucault는 보다 진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담론의 전략을 연구하기를 원하고 있다. 즉 Foucault는 사상과 행동의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틀의 궤적으로써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따라서 화자의 구체적 언명보다는 무엇이 화자의 정신적·사회적 우주를 형성하는가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Foucault는 -역사적 초월성이라는 바로 그 생각이 그에게는 저주이다- 이상은 인간에(humanity)에 있어 종종 나쁜 뉴스가 되었고 실재가 되려는 개선은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지적이며 단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oucault는 상대주의자가 아니라 실용 주의자이었다. 철학은 인간의 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들의 조화된 투쟁만이 보다 나은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인간들의 능력을 Habermas는 권력이라 부른다(Habermas, 1977). 그러나 Foucault는 이를 권력에의 저항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의 맥락에서 정당화되어야 할 실제적 문제로써 저항에 관한 규범적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Kelly, 1994: 382).

Foucault는 그의 주장과 비판이론가 사이에 평행주의(parallelism)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Foucault는 현대사고 양식이 개인에게 가하고 있는 억압을 노출하려는 바램을 비판이론가와 같이 하고 있다. 그는 방법은 다르지만 비판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적 합리성의 비판적 이론에 기여하였다.

Foucault에게는 의사소통의 공개성이 권력관계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나 충분한 기준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합의의 차원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다면적인 담론적·비담론적 실재를 이해하는데 충분할 수 없다.

Foucault는 권력과 지배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원했으며, 그의 목적은 사회에서 권

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환경에서 덜 손상을 입히고 덜 엄격한 권력 관계를 함양 하려는 것이다.

2. 이론과 실제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는 원망과 함께 이론과 실제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Habermas와 Foucault를 연계시킬 수 있다. Foucault는 그의 정치적 투쟁이 그의 철학적 과제와 합의 - 적용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Foucault는 지식인의 역할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데, 즉 현장에서의 행위자들에게 구체적 조언을 하는 것이 지식인의 권리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 사물을 보는 관찰자가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Foucault가 정치적 투쟁에 참여했을 때 그는 그의 지적 능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사용했다. 이때 Foucault는 권력자들의 귀를 이용하였으며 죄수와 같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지식인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할 일은 명백하고도 당연히 여기는 것을 재질문하고, 규칙과 제도를 재평가하고, 정치적 의지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Foucault는 말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 가로서 Foucault의 목적이었다. 그의 목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고 특징화하는 것이다. 나의 프로젝트는 전문가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을 정직하게 일깨워 지금까지 말없이 통했던 행위, 제스처, 담론 등이 문제가 되고,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Foucault는 말하고 있다(Foucault, 1991: 84).

Foucault는 사례연구를 통해 권력에 직면한 용기의 이야기를 편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에 있어 교묘함의 이야기를 꺾어 버리려 하고 있다. 우리들의 이론과 실제의 구성화된 성질을 보여줌으로서 Foucault는 질서를 위해 우리 자신에게 강요하는 몇몇 정신적·행태적 억압(구속)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Fischler, 2000: 361).

3. 이론과 역사

현대 계획이론에 있어 Foucault가 기여 또는 도전한 가장 큰 것은 사상체제 내지 합리성 형태의 역사적 구체성에 대한 그의 주장이다. 계몽에 반대 또는 찬성하느냐 하는 지적인 협박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Foucault는 근대적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Habermas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Foucault,

1984b). 오히려 그것은 근대성을 위해 지불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Foucault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즉, 철학이 비판적 사고에 있어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합리성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본래적 위험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합리성과 회전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Foucault, 1984a: 249).

Foucault는 근대적 합리성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의 근대적 합리성인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타인을 통치하고, 전체 사회를 통치하는 방법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Foucault, 1991b). Foucault는 근대도시계획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에서 논의되어야 할 방식으로 근대 정부를 연구했다. 그의 계보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의사소통적 이론을 새로운 정부론으로, 협력적 행동을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실체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실제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편 역사적 분석의 과제도 더욱 중요한데 여기서 Foucault의 사고와 행동의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틀에 대한 이론이 계획이론에 있어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oucault의 역사저술에서 도전이나 방해물에 직면한 개인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고안하느냐에 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지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상황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발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 계획가들의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공공행동을 촉발시키는 문제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Foucault가 계획가에게 남겨준 유산은 권력에 대한 도전적 논제에 있기 보다는 그의 쇄신적 방법론이다.

Castel(1994: 237)은 문제화가 Foucault의 본질적인 방법론적 기여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화 원칙이 Foucault의 저술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Foucault, 1984c). 그 하나는 탐구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을 (실제)를 문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문제화는 계보학적 분석과 동의어라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 정신병자, 죄수들을 다루는 방법이나 성에 관해 이야기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그 각각은 비교적 최근의 사회적 구성이다. Castel은 계보학이 사회적 질문의 현재 구성을 구조화하는 기억을 회복하는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Castel, 1994: 250~1).

두 번째로 문제화는 구체적 지성인, 개혁자들 및 공무원들의 실체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형성하고, 가능한 해결책의 영역을 어떻게 한정하고, 그들의 국지적 쇄신책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보학은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복잡하고 부정형적인 상황이 어떻게 기술적 해결이 가능한 구체적 문제로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군대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전문적 과업으로 변환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Foucault는 문제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문제화는 주어진 것을 문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일련의 방해물과 어려움을 문제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응을 산출하려는 시도이다(Foucault, 1984d: 389).

이러한 똑같은 과정이 오늘날 생겨나는 것은 정부의 재고안화(reinventing) 과정이다(Osborne & Gaebler, 1993).

계획에 있어 포괄적 의사결정을 찬성하는 주장은 Foucault의 저술, 특히 그의 정부 담론과 실제의 배타적 성질에 관한 언명에 의존함으로써 지지를 얻고 있다. Foucault는 근대 통치성(governmentality)이 분류와 분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Foucault는 지성인이 항상 회의적이어야 하며, 무엇인가를 새로운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합의의 비용

역사적 질문, 즉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가에 덧붙여 Foucault는 또 하나의 질문을 계획가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한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대답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의미 있는 정치적 노력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론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것 같다. Taylor는 Foucault가 너무 일방적인 분석을 하며, 특히 새로운 분과과학은 보다 평등주의적 참여 형태로 특징되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자기 학문의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Taylor, 1985: 164-5).

Foucault는 Taylor의 주장에 동의했을 런지 모른다. 그러나 Foucault는 행동가로서, 지성인으로서 집합행동의 보다 자유롭고 참여적인 과정을 창조하려고 노력한 한편 Foucault는 그들이 그 실재를 위해 지불하여야만 할 비용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고집하였다.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과학적·관료제적 정상화를 완화(감소) 시키는 반면 그것은 다른 형태의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내적 자신의 공공노출이다. 계획가들이 심리적·역사적 변수에 민감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한편 개인적·문화적 이슈들이 공적인 이슈들로 변모되는 것이 거의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Habermas, 1984).

또 다른 위험은 (의사소통적 계획에 숨어있는) Foucault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개인이 아니라 Foucault가 그리 많이 논하지 않은 정치체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형태는 대의 민주주의와 국가 관여를 해칠 정도로 정치적 비용을 초래케 할 수도 있다. Taylor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Habermas의 발자국을 따라 가는 이론가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연장 또는 보완물로서 대화적 또는 숙고적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Taylor, 1998: 73).

시민사회에게 국가로부터의 보다 많은 독립성을 주고 시민 특히 소외된 자들에게 보다 많은 목소리를 부여하려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조화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국가관여가 없다면 시민사회는 곧 시장 또는 정글로 변화 될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해지게 될 수 있다. 자결과 공론의 행사에는 제도적·물질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Young, 1989). 기존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잘못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요가 아닌 어느 정도의 압력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간섭은 합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하고, 특히 재분재 기제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의사소통적 계획은 대변, 해석 및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상에 뿌리박고 있는 불정의에 대한 가치 있는 대응책이다. 그러나 그들이 갖는 문화적 불정의에 대한 강조로 인해 인정의 정치와 공개토론의 정책의 주창은 경제적 착취의 문제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Fraser, 1995: 14~5).

정상화의 제도를 자기표현의 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명분이다. 그러나 세계화 등으로 야기된 불평등을 해소할 힘도 의지도 약한 중앙정부의 존재를 생각할 때 국가와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

Foucault의 사상은 계획가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왜 해야 하는가라는 역사적 질문의 근원으로서 중요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Ⅲ. 도시계획에의 함의

계획이론에의 자주 거론되는 약점은 권력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획에 있어 권력의 중요성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하며 특히 계획이론의 사회정치적 맥락, 계획에 있어서의 이론, 및 계획의 종합 학문적 성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Foucault의 저작들은 권력의 정체를 밝히고 이를 변화시켜 권한화(empowerment)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대안적 계획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 계획과정에 있어 권력과 지식의 역동성

철학 및 비판적 사고의 중심 이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이다. 즉, 이성(reason)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역사적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의 한계와 위험은 무엇인가? 가 그것이다.(Rainbow, 1991: 239) 계획의 이상적인 기반인 합리주의(rationalism)는 지금까지 무수한 이론적 비판 하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합리주의의 기반이 부서지고 가라앉게 됨에 따라, 계획이 대처해야 하는 실질적 이슈들은 (예를 들어 환경보전, 사회통합, 국가 발전 등) 변화해 왔으며 재구성되어 계획과정의 정당성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합리성의 정당성이다. 그러나 계획수립은 궁극적으로 합리성의 피상적 특성이 아닌 담론내 또는 간의 권력과 지식의 보다 심오한 역동성에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 제기한 여러 질문들은 Foucault의 초기 주장, 즉 포스트 구조주의적 저술과 후기 저술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지식에 관한 담론이론에 의거하여 답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계획이론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탐색하려 한다. 요컨대 Foucault의 주장(비판)은 권력의 작용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조작과 통제, 혼란과 배제, 기타 왜곡 등을 가져와 계획과정을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2. 정책 담론에 있어서 권력과 지식의 관계

담론으로써 의사결정을 이론화하고 분석하는 것이 계획에 있어 일반적인 행동이 되고 있다.(Fisher & Forester, 1993) Foucault는 보다 실용적이고, 특히 가장 비가시적이며 음흉한 권력에 대항하며 적대적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다(Foucault, 1997:208). Foucault의 통찰력이 계획의 근본이 되는 배제, 협치(governance), 권력 및 진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보다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담론(discourse)이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즉 타당성 요구(vadility claims)에 대한 논증적 정당화가 시도되는 성찰적 상황으로 담론적 구조 자체가 이성의 전형인 것이다(윤평준, 2005: 136~7).

1)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으로써 담론의 등장

Foucault의 담론이론은 사회적 세계에 초점을 둔 담론분석방법론의 강력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Foucault에 있어 담론의 중요성은 권력과 지식의 접촉면에서의 그것의 입장이다. 이것이 Foucault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Foucault는 권력이 주권의 중심에 있다고 보지 않고, 권력은 수많은 장소들에서 행사된다는 대안적 명제를 제시한다(Foucault, 1990: 94). Foucault에 있어 현대권력은 잠행적

이며, 진리와 지식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 권력은 모든 곳에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Ibid*: 93). Foucault에 있어 이러한 정규화 하면서 계율적인 권력의 행위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이나 선생들뿐만 아니라 계획가도 해당된다. Foucault는 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계고적 처방(countionary prescription)을 내놓았다(Foucault, 1990: 98~101).

첫째, 내재성의 규칙이다. 권력은 개인에게 강요되지 않고 계획가와 같은 행위자와 시민간의 관계와 같은 국지적 중심지에 내재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 변이의 규칙이다. 권력의 분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그 분포에 있어 변형의 패턴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이중적 조건화의 규칙이다. 국지적 중심지와 변형의 패턴은 아치형을 구성하는 전략 내에 얽혀있다. 따라서 특별한 논의의 넓은 맥락이 그 형태, 내용 및 결과에 결정적이다. 그리고 광대한 전략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국지적 권력관계에 의존한다.

넷째, 담론의 전술적 다유의성(결합성)의 규칙이다. 권력관계를 전파·생산하는 담론적인 구성은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또한 담론은 권력을 강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담론은 권력을 손상시키고 노출시키며 부서지게 만들며,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2) 지식과 진리: 권력의 기능

진리는 생산, 규제, 분배, 순환 및 언표의 작동을 위한 규칙화된 절차의 체제로 이해된다(Rabinow, 1991: 74). 지식과 진리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는가가 의사결정에서 중요하나 이러한 개념들이 의사결정분야에서는 거의 정의되고 있지 않다. 계획가들은 그들의 작업이 합리성과 객관적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합리성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비판은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사고과정이나 합리적 과학적 실험이 궁극적 진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Foucault는 자연 및 사회과학간의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어떠한 영역일지라도 진리는 사회적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91: 72~3).

3) 권력과 진리의 놀이터

진리와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Foucault의 견해는 탐구에 새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장의 궁극적 진리에 관한 질문들이 잘못돼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진리는 특정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합리적

이러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 형식으로써 계획을 이해하는데 특히 적실하다. 또한 이것은 Foucault가 합리성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단순히 합리적/비합리적 주장들은 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진리로써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금지, 분리와 거절 또는 진리에 대한 의지의 강요 등의 전략을 통해 해사되어 질 수 있는 배제의 절차이다. 담론은 나아가 일련의 희박화라는 내적인 절차에 의해 제한되어지는데 첫째는 논평 원칙이고 둘째는 저자원칙이며 또 학문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정책논의에 있어서, 논평원칙은 어떠한 텍스트를 정전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텍스트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 저자원칙은 담론에 있어 분류적 기능을 가진다. 즉 어떠한 담론적 set의 의견을 표출하고 사회 및 문화 내에서 그 담론의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Rabinow, 1984: 107).

3. 계획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론의 역할

1) Foucault와 메타이론

Foucault의 (담론)이론을 계획의 새로운 이론구성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거에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도전했으며 또한 기존 이론과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계획의 패러다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초라한 분석적 도구에 머물고 말 것인가가 그것이다. Foucault의 저술의 계획에의 적실성이 탐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근대적(postmodern) 이론가들에게 친숙한 수수께끼로써 Foucault의 메타이론에 대한 반대 주장이다. Foucault는 사회적 세상의 일관적 분석에 대해서 새로운 원시(原始)재료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Foucault는 결코 처방적 이 아닌데 왜냐하면 Foucault는 반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Foucault는 그의 저술이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계획가로써 우리가 그의 권력, 지식 및 담론분석의 타당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계획에 있어 그의 함축미를 따르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2) 맥락: 계획분석에 있어 주장의 전환

계획가들은 성찰적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 계획이나 정책결정에 있어 새로운 방향은 합리적과정과 새로운 방향이 묻혀 있는 규범적 혼란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합리론에 대항하여 제한된 합리성(Simon, 1957), 부분적 점진론(Lindblom, 1959),

혼합주사모형(Etzioni, 1967)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초점은 종합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Lindblom은 결국 복수성에 의존한 부분적 점진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다(Lindblom, 1979). 이러한 인식은 정책과정에 내재된 지식과 권력 간의 긴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Lindblom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개발의 이상적 모형을 창조하려고 노력한 반면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에의 궁극적 의지를 인지한 또 다른 이론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계획이론가들은 정책결정의 정치적 차원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담론의 기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논쟁의 전환이 계획이론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계획과정의 합리성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Fisher & Forester, 1993). 이러한 이탈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고 논쟁에 기초한 정책결정의 토대가 되고 있다.

3) 계획에 있어 권력과 이론 : 이중성의 위험

지금까지 논의는 정책과정 깊숙이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여 계획에서 사용된 제이론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한다. 즉, 권력·지식이 어떻게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이론이 담긴 제반 기교 내에서 작동하는가이다. 이러한 탐구의 선은 Throgmorton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주장하기를 우리들은 기술적 기교(예측하기, 조사하기, 모델링하기)가 어떻게 텍스트 내에서 설득적 상(像)으로서 행위하는가 배우고 나아가 그 수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청중을 설득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Throgmorton, 1992: 29).

전통적으로 이론가들은 과정이론(theory of planning)과 내용이론(theory in planning)을 구분하여 왔다(Faludi, 1973). 정책결정은 다양한 계획이론의 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공간, 시간, 돈,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에 관한 이론인데 이러한 것들은 정책과정내의 정책분석의 기법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그 대표적 예가 B/C분석이다). 따라서 계획의 이중성을 유지하는 것이 편리한데 왜냐하면 이중성이 정책 분석가로 하여금 그 기교나 수사를 반드시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범역(spectrum)의 기교체계를 쓸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이는 분석가들이 광범위한 과학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론들의 흔적을 채택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무이론적(atheoretical) 접근방법에 해당된다. Foucault의 비판은 절차이론과 같이 내용이론까지도 권력/지식 관계에 몰들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이론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권력의 영향의 흔적을 감추고 정책과정에 있어 규범적 가치들, 혼란과 조작의 강요 가능성을 제거 시킨다.

4) 계획이론 : 학문적 경계로 둘러싸임

담론적 경쟁으로서 정책과정을 특징화함으로써 상이한 행위자들의 기여를 둘 수 있는 큰 캔버스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론은 이론적 패러다임의 경계와 각각 영역에서 특별한 이론적 논의의 진전을 확대시키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도시 및 지역계획 영역의 활동중에 두 개의 분과과학, 즉 환경주의와 사회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론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분과과학의 경계를 초월하여 도전적인 다양성을 가진 가치, 코드, 언어 및 이론적 입장을 조우하고 참여·대처해 가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실천가들은 양립 불가한 이론적 기초로부터 일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과학문의 경계는 정책결정과 통합된 계획이론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학문적 환경 내에서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적절하면서 수용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개발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Foucault의 접근방법은 어떤 특정 분과과학에 연계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논증과 과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이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V. 맺는 말 : Foucault의 담론과 정책과정

명멸하는 계획이론은 실제로 권력을 제거하지 못하며, 권력은 단순히 분석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킬 뿐이다. 의사소통적 행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이 충만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나 Foucault가 없다면 권력의 역동성에 관한 분석도 없다.

그러나 권력문제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권한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하고 촉진시킬 것인가? 권력을 무시함에 있어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은 규격화된 영역 속으로 행위자를 넣을 목적을 통해 권한화의 가능성에 엄격한 경계를 설정한다. 불리한 이해당사자들을 권한화시키는 대신 그 과정은 어떤 행동원칙에 근거하여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통제 형태에 쉽게 동화되어 버린다. 공적 영역내로 결코 들어가지 않거나, 가시적으로나 기록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위자들에게는 사실상 잠재의식의 방식으로 계획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비이성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도 있다.

Foucault는 권력/지식 역동성에 기초한 담론들 간의 경쟁으로서 정책 결정을 이해하는 방향의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이론적 수준을 제공해왔다. 합리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논증

이 어떻게 정책결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형시키는가를 질문한다. Foucault의 담론이론으로부터 개발된 계획 패러다임의 가능성이나 가치는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Foucault가 제공하는 초점과 도구는 현대 계획이슈의 핵심으로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획 논의에 있어 가치와 지식기반의 충돌, 반대집단들간의 분쟁, 권한화의 가능성, 실세계문제에 대한 대응성, 정책을 개발·정당화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의사소통적 기교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앞으로 충분한 경험적 증거가 갖추어지기까지는 잠정적 이론(tentative theory)(Popper, 1972b)에 불과하다. 과학의 방법은 대담한 억측과 이를 반박하기 위한 신중한 시도, 즉 억측(conjecture)과 반박(refutation)의 과정이며(Popper, 1972a), 하나의 이론 내지 명제를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명제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증가능(falsifiability)하여야 한다는 Popper적 과학철학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경험적 반증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증가능성이 많은 것으로서 어느 정도 실천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양해림. (2006). “Foucault의 포스트구조주의-「지식의 고고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303-25쪽.
- 윤평준. (2005). 『Foucault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 Bernstein, R. (1983).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Oxford: Blackwell.
- Castel, R. (1994). “Promatization as a Mode of Reading History”, in Goldstein, J.(ed.), *Foucault and Writings of History*, Oxford: Blackwell, pp. 237-52..
- Dreyfus, H. & P. Rabinow. (1986). “What is Maturity”, in Hoy, D. C.(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pp.
- Dreyfus, H. L. & P. Rabinow. (1983).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Sussex: The Harvester Press.
- Faludi, A. (1973). *Planning Theory*, Oxford: Pergamon Press.
- Fischler, R.,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a Foucauldian Assessment”,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9, pp. 358-68.
- Flyvbjerg, B. (1998). “Habermas and Foucault: Thinkers for Civil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2), pp. 210-33.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trans. by, Robert Hurley, Middlesex: Penguin Books.
- Foucault, M. (1984a).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Rabinow, P(ed.), *op.cit.*, pp. 239-56.
- Foucault, M. (1984b). “What is Enlightenment?”, in Rabinow, P.(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pp. 32-50.
- Foucault, M. (1984c). “The Order of Discourse”, in Shapiro, M.(ed.), *Language and Polit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08-38.
- Foucault, M. (1984d). “Politics and Ethics: an Interview”, in Rabinow, P.(ed.), *op. cit.*, pp. 373-80.
- Foucault, M. (1988). “The Ethics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Bernauer, J. & 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Cambridge: The MIT Press, pp.
- Foucault, M. (1991). “Questions of Method”, in Burchell, G., C. Gordon & P.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The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73-86.
- Foucault, M. (1991b). "Governmentality", in Burchell, G., C. Gordon & P. Miller(eds.), *op.cit.*, pp. 87-104.
- Fraser, N. (1985). "Michel Foucault: a 'Young Conservative'", *Ethics*, 96(1), pp. 165-84.
- Fraser, N. (1995).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London: Routledge.
- Habermas, J. (1992). "Further Reflections on the Public Sphere", in Calhoun, C.(ed.), 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 Keane, J.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On the Predicaments of European Socialism, the Prospects for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Controlling Social and Political Power*, London: Verso.
- Kelly, M.(ed.). (1994). *Critique and Power: Recasting the Foucault/Habermas Debate*, Cambridge: MIT Press.
- Lindblom, C. E. (1979).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 *PAR*, 39(6), pp.517-26.
- Miller, J. (1993). *The Passion of Michael Foucaul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Osborne, D. & T. Gaebler. (1993).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Penguin.
- Popper, K. (1972a).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opper, K. (1972b).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jchman, J. (1988). "Habermas's Complaint", *New German Critique*, 45, pp. 163-91.
- Taylor, C. (1985). "Foucault on Freedom and Truth", in Taylor, C.(ed.), *Philosophy and Human Sciences: Philosophical Paper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2-84.
- Taylor, N. (1998). "Mistaken Interests and the Discourse Model of Planning," *JAPA*, 64(1), pp. 64-75.
- Young, I. M. (1989). "Polity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99, pp. 25074.